

사우회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단합대회 동시개최

등산·바둑·낙시·골프 동호회 등 6개 행사지원

사우회는 5월18일 양주문화동산에서 사우회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올해 단합대회를 동시개최했다. 또 상반기 동호회 활동 및 행사는 등반대회를 시작으로 낙시·골프·바둑대회를 거쳐 원로회원 산업시찰을 마지막으로 6건의 행사를 모두 끝냈다.



5월18일 양주문화동산서
회원 150여 명 참석 성황리 마쳐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국에서 153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기념행사에서는 초창기 사우회 발전에 공이 큰 박근숙 명예회장과 이만우고문 그리고 초대 사무국장으로 12년간 사우회 살림을 꾸려왔던 김세중 회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사에서 황희만 부사장, 김재형 경영본부장, 고민철 총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등산대회 : 4월 14일 / 북한산
북한산 포근정사까지 오른 등산대회에 60여명의 회원이 참가해 건강을 다지고 친목을 나누었다.

낙시대회 : 4월 28일 /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수로
날씨와 조황과의 관계를 고려해 날짜를 예년보다 늦게 잡았으나 가던날이 장날이라고 바람불고 비까지 내리는 100년 만의 추운 날씨 탓에 붐비는 구경도 못하고 베스 몇 마리에 만족해야 했다.
1등 강정수(관리) 베스 51cm / 2등 김후선(보도) 베스 34cm

골프대회 : 5월 11일 / 충주중원CC
8개팀 32명이 참가했으며 처음 참가한 심규성(관리) 회원이 미국 생활중 갖고 닦은 프로급의 실력을 과시 하면서 79타로 우승했다.
감투상 김애희(관리) 여성회원 첫참가

바둑대회 : 6월 17일 / 사우회
27명이 벌인 치열한 대국 끝에 A조에서 임두호(기술) B조에서 이창호(기술) 회원이 우승했다.

A, B조 각기 기술부문과 업무부문 회원간에 결승전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는데 기술부문이 2:0으로 한국 축구가 그리스를 꺾은 그 스코어로 끝났다.

원로회원 산업시찰 : 6월 22일 / 춘천
올 해는 춘천지역으로 떠났다. 최대 29억톤의 담수량을 자랑하는 소양강댐과 춘천MBC갤러리 그리고 잘 가꾸어진 남이섬을 둘러 보았다.
MBC에서 대형 버스와 음료수를 지원해 주었고 춘천MBC에서는 점심식사와 토마토비타민을 선물해 원로회원들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MBC 100년 대계 상암동 신사옥

6.18 상암시대 착공, 2013년 3월 준공

사우회 강회장등 8백여명 참석



회원들의 마음의 고향인 MBC가 상암동 신사옥 착공식을 계기로 웅비의 날개짓을 시작했다.

MBC는 6월 18일 마포구 상암동 신사옥(사진) 신축공사 현장에서 착공식을 갖고 글로벌 방송문화의 선두주자로서 디지털미디어의 중심에 우뚝 설 것을 내외에 선포했다.

김재철 사장(사진)은 "내년으로 창사 50주년을 맞이하는 MBC가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상암동 새 사옥을 짓게 됐다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수 있는 방송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 했다. 이날 신사옥 착공식에는 사우회에서 강영구 회장과 이연현 상임 부회장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다.

상암 신사옥은 부지면적 3만 4,209㎡에 건

김재철 사장 "글로벌 경쟁력 갖춘 방송사 만들겠다"

1만여평 부지에 9층짜리 방송센터

14층 경영·미디어 센터 등 복합 방송 시설 갖춰

축연면적 14만 8737㎡ 규모로 9층짜리 방송센터와 14층짜리 경영센터 14층짜리 미디어센터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 방송시설이다. 상암동 신사옥은 2013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중심 경남! 경남의 중심방송 창원MBC!

(마산MBC가 7월1일부터 창원MBC로 바뀌었습니다)

CHANGWON MUNHWA BROADCASTING CORP
http://www.changwonmbc.co.kr

우) 630-71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525-1
대 표 : 055)250-5000
제보전화 : 055)250-5050
광고문의 : 055)250-5072



창원 MBC

그때 그 시절

전 직원 보너스 100% 반납으로 슬로모션 장비 샀다



이 환 의 前사장

월드컵 애기가 어디서나 화다. 한국의 8강행이 좌절됐는데도 그래, 그만하면 잘 했다고

74년 문세광 사건 때 그 장비 덕에 역사적인 대특중

만족해 한다. 그런데 MBC 팬들에게는 뭔가 허전하고 아쉬운 대목이 있다. 남아공 월드컵 SBS 단독중계, 이 대목에 이환의 사장님께서 할 말이 많은 듯

싶어 질문을 던졌다.

“1970년대는 펠레의 전성시대였지요. 그야말로 전 세계의 영웅이었어요. MBC가 축구황제 펠레 내한경기를 단독중계하기로 돼있었어요. 단독중계는 따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MBC는 Slow motion 장비가 없어서 시청자들에게 순간 순간의 묘미를 전달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고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KBS, TBC는 Slow motion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스포츠경기에 잘 써먹고 있었어요.

그때 KBS가 Slow motion을 공동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MBC, KBS 공동중계를 제시하고 나섰어요. 한국 제일의 민방이 Slow motion 장비 하나 없다는 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지요.

그 장비 가격이 우리 전직원 보너스 100%와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매달 초에 전직원이 공개홀에서 조회를 가졌어요.

조회석상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요. Slow motion 장비를 구입하겠다. 보너스 100%를 양보해달라. 사원들이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HS 100B’라고 하는

Slow motion 녹화제

생기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세기의 역사적

장을 고스란히 담은 대

특중을 했어요. 1974년

8월 15일 장충동 국립

극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낭독하는

도중에 육영수여사 저격사건이 일어났지요.

MBC, KBS가 중계하고 있었는데 KBS는 ‘백판’으로

일관했지만 우리 MBC는 계속 on air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생한 현장을 Slow motion 으로 재생하

자 단상에서 일어난 VIP 들의 의연하거나 비열한 행

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국민들을 또 한번 놀라

게 했지요. 역사적인 대특중이었습니다.”

필자가 중부경찰서 출입기자였을 때었는데 그날 억수같이 비가 퍼부었고 취재차가 없어 장충동과 메디칼센터, 서울대병원을 뛰고 또 뛰어서 죽어라 취재했

고 사건 이후 문세광의 현장 검증으로 국립극장 경비를 맡았던 공무원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었다.

“사장으로 계셨을 때 여러 곳에서 이런 저런 압력이

나 간섭이 적지 않았을 텐데요?”

“물론 있었지요. 국가정책이나 사회적 트렌드에 의

한 어찌구니 없는 일도 많았지요.”

이런 것이라. 우리 말 쓰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방

송프로그램의 우리 말 개명이 시작됐다.

가요 스테이지→가요선물, 일요모닝쇼→이 주일의

화제, 뮤직 살롱→젊은이의 휴게실, 뉴스 데스크→뉴

스의 현장, 스타쇼→연기 무대, 팝스 팝스→외국가요

를 즐기다 심지어 외국어 이름의 연예인 출연 규제

로 인해서 어니언스→양파들, 블루벨스→청중, 김세레

나→김세나 등 옛날 일들인데 잘도 기억하고 계신다.

요즘은 윈터 걸즈, 2PM 등 아이돌 그룹을 생각하

면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잠깐 말을 쉬면서 과거를

뒤돌아 보되만 이사장님의 톤이 둔중해진다.

“한번은 K정보부장이 전화를 했어요. MBC 안에,

경향신문 안에 홍위병이 있다. 모가지를 쳐라. 그렇

치 않으면 당신 목이 날아갈 것이다

엇그제 기자하던 사람이 운 좋자 사장이 됐는데 여

기까지로구나 하는 생각에 숨을 길게 내 쉬고 나서

시국문제를 사유로 해서 부하의 목을 칠 수 없습니

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K부장이 청와대에 들어

가 이환의를 바피야 한다 라고 강변하자 PP께서 자

네 일이나 잘해 라고 일

갈하셨다는 얘기를 나중

에 들었지요.

MBC 사가(社歌)에도

있듯이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 알찬 방송을 위해

지금이야 말로 MBC사원

들이 저력을 발휘 할 때지요

경영자나 노조나 정치권력이나 국민들을 무서워하

고 공경해야지요. 제 자리가 어디인가를 항상 명심하

고 각시현상에 빠져서는 안되지요.

近者悅 遠者來(가까이 있는 자는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자는 오게 하라) 이렇게 할 저력 말이예요.”

인터뷰 / 이대우 MBC文記會 회장

본회회원 3인 언론사 경영말아

하순봉(보도) 회원등 본회회원 3인이 최근 잇달아 언론사 최고경영자로 선임돼 눈길을 끌고있다.



구본홍(보도)

구본홍(보도) 회원은

CTS 기독교TV 사장으로

선임돼 5월 18일 취임

식을 가졌다. 구사장은

2005년부터 3년동안

기독교TV 부사장을 지

낸바 있어서 기독교TV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

는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사장은

이에앞서 1년동안 뉴스전문 채널인 YTN

사장을 역임한바 있다. CTS 기독교TV에는

는 배상석(편제)회원이 부사장, 이종수(관

리)회원이 상무로 재임하고 있다.



김종오(보도)



전종건(편제)

김종오(보도) 회원은 OBS 경인방송 사장으로 선임돼 6월 11일취임식을 가졌다.

대구MBC사장 출신인 김사장은 경인방

송이 재개국 준비작업을 할때부터 깊숙이

간여해 왔으며 그동안 영안 부회장으로 경

인방송 운영에 자문해 오다가 이번에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됐다.

OBS 경인방송은 또 MBC애드컴사장과

방문진 사무처장을 지낸 전종건(편제) 회

원을 부사장으로 선임하고 내부 경영혁신

과 대외적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하순봉(보도)

일자리방송 회장인

하순봉(보도)회원은 서

부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주에서 발행되는 경남

일보 회장으로 선임돼 6

월 16일 취임식을 가졌

다.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인인 하회장은 3선 국회

의원과 이회창 총리시절 비서실장을 역임

하는 등 정계, 언론계에서 많은 활약을 펼

쳐왔다.

방문진 새 이사장에 김재우씨

기업가 출신, 2012년 잔여임기까지 재임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장에 김재우

(65) 전 부산건설

사장이 선출됐다.

방송문화진흥회는

5월 19일 이사진 9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열고

방송통신위

원회가 5월 14일 보결이사로 임명한

김이사를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신임 김이사장은 고려대학 경영학

과를 졸업했으며 삼성물산 특수사업

본부장, 부산건설 부회장, 아주그룹

전자재사부본부 부회장을 지냈다.

김이사장은 김우룡 전이사장의 남

은 임기인 2012년 8월 8일까지 방문

진을 이끌게 된다.

MBC 감사에 임진택씨

회계 전문가로 지역 MBC감사도 겸임



임진택

MBC 신입 감사

에 임진택(60) 중

앙회계법인 회장이

선임됐다.

MBC는 6월 23

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방문진이

6월 21일의 임시

이사회에서 MBC

감사로 내정된 임회장을 새 감사로

확정했다.

임감사의 임기는 2013년 정기 주주

총회전 까지이다. MBC 감사는 19개

지역 문화방송의 감사도 겸하게 된다.

·경복고, 서울 상대 경영학과 졸업

·2004년 삼일회계법인

·2002년~2010년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2009년 삼성 SDI 사회이사

마산MBC-창원MBC로 社名변경



마산MBC가 7월 1일자로 社名을 창원MBC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마산과 창원 진주시가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을 합쳐 인구 108만명의 통합 창원시로 출발한데 따른것이다.

창원MBC 김종국 사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창원MBC도 마산 MBC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역MBC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그 역할을 다 해 나갈것 이라고 다짐했다.

MBC ESPN도 MBC SPORTS로 社名변경

MBC ESPN도 8월 1일부터 社名을 MBC SPORTS로 변경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MBC가 MBC ESPN의 합작선인 싱가포르 ESS와 합자투자계획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새 이름으로 출발하는 MBC SPORTS는 이달 말쯤 새 로고를 확정짓을 예정이다.

MBC SPORTS 조기양 사장은 앞으로 국내 스포츠 중계보강은 물론 해외 스포츠 프로그램의 고급화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차 한 잔

"MBC 울타리 덕에 아직까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 기쁘죠"

공주영상대학 총장 김 수 량



"잘할 수 있을까 망설였던 게 있거 같은데 벌써 6년이나 됐네요." 2005년 2월 총장직에 오른 후 세 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 김수량 공주영상대학 총장.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6년이 훌쩍 흘렀단다.

총장으로서 그가 지난 6년간 지켜온 원칙은 단 한 가지다. 학생이 중심에 서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 학생 복지를 위해 취임 초기 그는 강의실의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강의실을 첨단장비로 디지털화했다. 또 캠퍼스 환경과 체육시설, 통학버스를 전면 개편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영상관 빌딩을 건립한 것. 3년간 200억원을 투자해 방송사와 유사한

내부 시설을 마련했다. "학생들에게 최고의 실습실을 마련해 주고 싶었어요. 실제 방송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걸 미리 다 해보라는 거죠. 그런 경험이 실제 제작 현장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중심의 국내 최고 '영상사관학교' 만드는 게 목표

그가 공주영상대학과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02년 연출과 조교수로 오면서 부터다. 3년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도 격의 없이 지냈다.

"제 연구실 문은 늘 열려 있었어요. 학생들이 드나들면서 저와 소통하기를 바랐거든요. 그 때 학생들에게 강조한 게 하나 있는데 인사를 잘 하자는 거였어요. 학생끼리든, 학생과 교수 사이든 인사를 잘하는 게 모든 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소한 거지만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바꿨어요."

2001년 마산MBC 사장을 끝으로 퇴직한 후 지금까지 학교와 인연을 맺고 있지만 한 때는 불가에 귀의하려고 했단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교에 관심이 있었고 기초불교학교, 경전학교 등에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기도 했다.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릴까

를 맺게 된 계기도 특별하다. "전기공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한 공업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MBC TV개국 채용공고를 보게 됐어요. MBC 시험을 보려고 새벽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는데 그제서 서울 땅을 처음으로 밟은 거였어요. 그렇게 MBC와 맺은 인연이 저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준 셈이죠."

내년 2월이면 세 번 째 임기가 끝나는 그에게 한 가지 욕심이 있다. 공주영상대학을 국내 최고의 '영상사관학교'로 만드는 것. 그런 생각은 위기에서 나왔다.

"학생 수가 점점 줄면서 지방대는 치열하게 생존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어요. 공주영상대학도 그런 고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 단계 높은 특성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먼저 찾는 대학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방송제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직 후 전국 질 돌아다니며 불가 귀의 생각도 - 작은 질 하나 짓는 게 내꿈

200억 투자 방송 시설 갖춘 영상관 건립, 방송제작 미리 경험하게 해주고파

고민하다가 전국의 질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질을 하나 지어서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제게 유효한 꿈입니다."

MBC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신이 있다고 믿는 그는 MBC와 인연

영국, 호주로 유학가듯 언젠가는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저희 학교로 유학 오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희 기자 birdy23@naver.com

ESSAY

화장실에의 추억 그리고 유감



김 기 덕

· 72년 MBC입사
· 라디오 본부 국장
· 2시의데이트 23년간 PD&DJ
· 현 와 미디어 사장

1970년대 정동시절, 화장실에는 아주 작은 비누가 세면대 옆에 놓여 있었다. 문화방송에서 경영했던 관광호텔 손님을 위한 1회용 비누였다.

문제는 이 비누가 너무 작아 쓰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몇 번 쓰면 닳아 없어지기 일쑤였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일부 여사원들은 개인 비누를 소지하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비누를 들고 다니기도 했다.

1980년대 초 여의도 사옥으로 이사오면서 화장

실에서 호텔 객실용 비누는 자취를 감추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의 타원형 비누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비누가 반토막으로 잘라져 세면대 옆에 놓여있었다는 것이다.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그렇게 한 모양이다. 비누가 반토막이다 보니 손을 씻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잘라낸 부분에 까맣게 때가 묻어있어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았다. 절약도 좋지만 대 문화방송 화장실의 비누가 반토막이라니.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반토막짜리 비누는 없어지고, 정상적인 비누가 놓여졌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것이 즐거웠다.

2000년대 들어 여의도 사옥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도 많이 달라졌다. 고급 비대가 설치되었는가 하면, 변기 옆에 신문이나 주간지를 비치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기도 했다.

고급 비대에 앉아 비치되어 있는 여러 신문들을 보는 재미는 출근하는 또 다른 재미였다. 문제는 비대앞 문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다. 내용은 대충 이렇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휴지를 변기에 넣으면 배수가 막히니, 사용하신 휴지는 반드시 변기 앞에 놓여있는 휴지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방송 7층에는 '골든 마우스'라는 석고상이 걸려있다. MBC 라디오를 위해 10년 이상 진행하신 분에게 '브론즈 마우스'를, 20년 이상 진행하신 분에게는 '골

든 마우스'를 시상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진 골든마우스 갤러리의 우공이산(愚公移山)이냐? 이사냐? 행자의 석고상을

제작, 금과 동으로 도금하여 전시해 놓은 공간이다. (필자는 제1회 골든 마우스 수상자임.)

이 공간은 '골든 마우스 갤러리'라는 고급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며 MBC를 견학하는 학생이나 관객이 가장 많이 찾는 라디오 최고의 명소이다.

문제는 이 '골든 마우스 갤러리'가 화장실 맞은 편에 있다는 것이다. 10명의 '골든 마우스' 석고상들이 하루종일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남녀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민망한 것은 새로운 '골든 마우스' 수상자가 나올 경우(주로 브론즈 마우스), 여기에서 기념식

을 거행한다는 것이다.

'골든 마우스' 석고상 앞에, 아니 화장실 정문 앞에 고급 뷔페식을 차려 놓고 사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 그리고 역대 '골든 마우스' 수상자들이 모인 가운데 시상식이 진행되는 것이다.

사장님이 기념사를 할 동안에도, 기념식이 끝나고 덕담을 나누며 음식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들락거리는 인파는 여전히 많다. 화장실 문을 옮길 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골든 마우스 갤러리'를 옮기든지.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대한 유감(遺憾) 중 하나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문은 열렸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문은 닫혀있다는 것이다.

여사원들이 열린 남자 화장실 앞을 애써 외면하면

서 지나가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둘 다 열어놓든지, 둘 다 닫아놓든지. 이 또한 남녀 차별이 아닌가.

또 하나 민망한 것은 휴지를 보충하거나 바닥 청소를 위해서 남자 화장실에 청소하시는 여자분들이 수시로 들락거린다는 것이다.

남자들이 일을 보고 있는데도 말이다. 여자 화장실에 청소하시는 남자분들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 또한 남녀 평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문화방송 화장실 유감(遺憾)은 필자에게는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다.

회원동정

李大雨(보도) 前전주MBC사장. 문기회회장. 4월15일 방송기자클럽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양영철(보도, 前삼척사장) 이성해(보도, Q/S 대표) 박선영(보도, 국회의원) 회원은 이사로 선임됐다.

金容斌(기술) 사우회부회장. 구담 김남수 선생이 운영하는 뜰사랑 정통 침뜸교육원이 4월 11일 실시한 제20회 뜰 요법사 시험에 합격했다. 5월1일부터 이틀동안 연수를 받고 뜰 무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金基德(편제) MBC FM4U의 골든디스크를 진행하다가 4월 25일 마지막 방송을 하고 마이크를 내려놨다. 1972년 MBC에 입사한 뒤 MBC FM의 2시의데이트를 진행하는 등 37년동안 DJ로 활약했다. 2시의데이트는 1994년 기네스북 단일 프로그램 최장수 진행 인증을 받기도 했다.

申俊雨(편제) 前여수MBC사장. 한글시집-바람의향기. 한시집-산하의향기 출판기념회를 6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柳興烈-張明浩(편제) 6월 22일에 열린 한국방송인회(이사장 최창봉) 임시총회에서 각각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朴秀夫(업무) CM파크(주)대표. 7월 1일 국제로타리 3650지구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경조사항

결혼

신명수(기술)장녀 5/01 박종규(기술)장남 5/08 민경창(보도)아들 5/15
김철순(업무)장남 5/29 박정섭(편제)장남 5/29 이대교(관리)차남 6/05
엄기원(관리)장남 6/10 심재정(업무)아들 6/12 신명현(업무)차남 6/13
김시용(편제)아들 6/13 김진홍(관리)장남 7/03
이화섭(관리)장녀 7/03 김기도(보도)장남 7/10 형진한(보도)장남 7/31

부음

이윤재(관리)부친상 4/10 장기태(관리)모친상 4/11 이화섭(관리)장모상 4/24
이해걸(업무)모친상 5/05 이한익(기술)장모상 5/28 김정환(편제)장모상 5/28
한귀현(관리)장모상 6/07 문장환(기술)모친상 6/30

경사

팔순 | 송운섭(목포) 9/11 이환의(전사장) 9/16 강영숙(ANN) 9/20

고희 | 유홍철(관리) 7/01 백재인(편제) 7/02 서정남(편제) 7/08
강용부(편제) 7/11 이종열(관리) 7/15 이기선(기술) 7/20
박영일(편제) 7/23 강홍신(기술) 8/01 이상수(관리) 8/04
김대수(전주) 8/14 차효길(미주) 8/16 김무길(대구) 8/20
김철순(업무) 9/03 김관영(편제) 9/06 하민웅(관리) 9/06
하영현(관리) 9/15 김재현(전주) 9/15 최 승(전주) 9/18
원정만(업무) 9/21 김용현(미주) 9/23 김 용(ANN) 9/29

회갑 | 양남중(관리) 7/18 조성식(업무) 7/20 이원형(업무) 7/28
김종연(편제) 7/29 이창우(편제) 8/11 이현우(ANN) 8/14
안영제(기술) 8/15 정수열(편제) 8/20 최동운(관리) 8/27
정진근(관리) 8/31 윤남현(대전) 9/01 유시복(관리) 9/12
김택곤(보도) 9/19 구자걸(기술) 9/30

전화/주소변경

|편제|

권오룡 031-882-9683
여주군 금사면 주록리 123-5
김경태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227-108 MBC 빌리지 15호
박종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6-26 (301호)
이근철 010-8875-8269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392 동광A 102-1503
정대용 강서구 염창동 242-8 예성그린캐슬 302호
정수열 010-8955-3891

|기술|

김세하 010-5221-0618
신명수 010-8776-3429

|관리|

김진홍 동작구 사당동1154 사당휴먼시아 102-1302

김창동 010-8670-6360
김하일 해남군 화산면 가좌리 (무학마을) 752-1
문성수 010-7156-9798
윤영란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부영사당으로A 110-1501
이경재 광명시 철산3동 637 푸르지오 하늘채 112-501
장두호 010-3930-2382
장영효 010-8915-2422
최대홍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1117 신안A 2320-1402

|보도|

김동환 양천구 목동 건영A 103-204
박근숙 010-8896-5666
신대근 강남구 삼성동14-1 중앙하이츠 101-1702
정길용 010-8925-0460

정충성 2644-4350
양천구 목3동 645-12 해밀빌라 A-301호
추성춘 010-3690-6250
마포구 도화동 마포트라펠리스 C-408호
함명철 010-5387-9427

|ANN|

김순환 010-9198-4178
남양주시 금곡동654 금강A 104-1004
임택근 송파구 장지동849 송파파인타운 301-1504

|업무|

박태지 강남구 역삼동 693-28 (2층)
최우형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528-14 한솔강변 마을 A102-1908

|대구|

성준현 경산시 중방동 893 e편한세상 106-1103

연회비 내신분들

*연회비 납부는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

평생회비

권혁준(편제) 4/12 김진홍(관리) 4/15 고재원(관리) 4/20 이병로(관리) 4/20
최창섭(ANN) 4/21 변웅전(ANN) 4/22 고대석(보도) 4/23 김재형(관리) 4/23
이우철(기술) 4/27 정수열(편제) 4/27 이익린(관리) 4/30 이대우(보도) 5/03
황용기(편제) 5/07 나일수(관리) 5/10 박성희(관리) 5/10 이영우(편제) 5/11
임영택(편제) 5/13 형진한(보도) 6/07 한귀현(관리) 6/16 김우석(부산) 6/23
조복행(관리) 6/25 김동환(기술) 7/07

연회비

4월 강대형(07-10) 강영구(10) 강지현(07-10) 강홍신(08-10) 고무송(04-10)
고임미(06-15) 공대식(10)권태환(10) 권해옥(11-15) 권황택(10) 김금봉(09-11)
김대수(전주) 김명수(08-12) 김병수(10) 김성훈(06-08) 김순환(06-10)
김영복(08-11) 김영택(07-10) 김영효(02-06) 김일수(07-10) 김재현(10)
김재환(06) 김중환(10) 김준영(10) 김창섭(08-12) 김필환(06-10) 김현철(06-10) 김
현선(09-10) 류근수(10) 문성수(10) 문시웅(92-10) 박성배(09-10) 박순웅(06-10)
박학정(08-11) 백병기(업무) 변현규(06-10) 선동규(10) 성창용(07-10)
송기남(08-10) 신승훈(09-10) 심규성(04-10) 엄기영(06-10) 오남열(09-10)
윤재국(08-10) 윤상도(08-10) 윤여중(10-12) 윤종욱(10-12) 윤종기(10)
이규용(08-11) 이기선(10) 이병도(09) 이성해(09-10) 이양휘(10) 이영하(06-10)
이원형(96-10)이익린(05-09) 이종복(06-10) 이해걸(09-18) 이화섭(10) 장기태(10)
장두호(01-17) 정경수(10-11) 정경태(10) 정국록(08-10) 정석진(06-10) 정수열(09)
정승호(10) 정중국(10-14) 정태성(10) 조무영(10) 조한준(10) 진성수(07)
진수용(07-10) 차명륜(10) 최기범(08-10) 최영식(09-10) 최정숙(09-13) 최창섭
(07-09) 표찬일(10) 하순봉(09-10) 홍윤호(10) 홍종선(06-09) 황선영(10-14)

5월 강의원(10) 강찬임(07-10) 강창우(07-08) 강효복(06-10) 강효섭(09-11)
권오룡(편제)09-11 김관영(02-10) 김기도(09-10) 김선희(10) 김세일(08-10)
김억천(10) 김영균(08) 김중복(10) 김중수(10) 김중연(10-11) 김창동(10) 김재영(10)
김태인(10) 나일수(09) 남궁미(10) 노병호(09-10) 노시창(06-10) 노영인(10)
박민정(10) 박연식(10) 박정섭(07-13) 박찬순(10) 박태웅(06-10) 반주원(10)
방영희(10) 서상용(10) 서은선(10) 서정훈(10) 신준우(02-10) 심상수(09)
안종순(10) 안주희(10) 오정엽(10) 오학균(06-10) 오학식(07-10) 유홍일(02-17)
윤여복(07-11) 이대우(07-09) 이명순(10) 이무영(10) 이상수(08-10) 이영복(08-10)
이오기(10) 이인숙(10) 이종선(08-09) 이종수(10) 임국희(10) 임병찬(06-10)
임용길(02-17) 장영배(06-08) 정영희(10) 정준모(10) 조춘희(10) 주구만(06-09) 성
창(10)최 남석(09-10) 최운형(10) 최화숙(10) 한석호(05) 한영희(10) 한웅희(10)
황경자(10) 황의철(06-10)

6월 권오룡(업무) 김동우(06-10) 김병문(10) 김시용(10) 김재욱(06-10)
김정환(04-08) 박기병(10) 백성원(10) 신해명(10) 오승룡(10) 이상혁(92-10)
이연현(09-10) 이종숙(05-10) 임동훈(10) 임주완(09-10) 전정익(10) 정동영(대구)10)
조동근(07-10) 조은국(09) 한귀현(06-09)

신규입회

4/23 高大錫(보도) 010-9105-1202, 042-330-3100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4-5
4/23 金在哲(관리) 010-9105-2192, 02-780-7049 영동포구여의도동47여의도자이A 101-1504
4/27 李宇哲(기술) 010-9105-3561, 02-3436-3526 서초구반포동18-1래미안퍼스티지A 102-1103
5/6 徐正埴(보도) 010-5386-9340, 02-2649-9797 양천구 목5동 신시가지A 113-406
5/7 南宮美(ANN) 010-9580-5595, 02-594-5595 서초구 반포2동 한신15차A 44-504
5/7 黃龍基(편제) 010-9274-6027, 02-718-4055 마포구 신공덕동 삼성래미안A 107-1101
5/10 朴聖熙(관리) 011-9997-3658, 02-6242-5353 서초구 방배3동 임광A 3-1003
5/13 林永澤(편제) 010-8873-1662 인천시계양구효성동236-6 서광A 502-403
6/25 趙福行(관리) 011-9915-2439 중랑구 목2동 250-17 우성A 102-314
7/07 金東煥(기술) 010-3617-9679, 02-562-9679 강남구 대치동 1014-3 삼성A 108-1506

사우가칼럼

전기의 네비게이터

전 병문진 이사장
서 규 석

라디오 PD였던 박찬순회원이 2006년에 60대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더니, 2010년에는 「발해풍의 정원」이란 단편집을 출판하였고 문학상에 추천되는 경사가 있었다. 올 6월에는 TV 1기생인 신준우 회원이 70대에 「바람의 향기」 「산하의 향기」라는 두 권의 시집을 출판하여 시단에 등단하였다. 매우 부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글재주가 없어서 그런 흥재를 낼 수 없는 나는 자연과 세상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는 걸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매일 새벽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산책을 즐긴다. 매주 토요일 새벽에는 아차산등산모임에 참가한다. 매월 1·3 목요일에는 6명의 중학교 동창친구와 등산을 한다. 우천불문하고 30년 이상 계속해온 즐거운 행사다. 예전에는 북한산이나 도봉산의 여러 코스를 다녔다. 모두 80대에 접어들고 무릎이 약한 친구가 생긴 후로는 경사가 완만한 곳을 찾는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등산로와 걷기코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좋은 곳이 많다. 변화를 위해 여러 곳을 찾고 새로운 코스를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나는 코스개발을 위해 혼자 다니는 일도 즐긴다. 새코스를 찾는 데는 단행본이나 신문 스크랩을 참고하고 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주로 이용한다. 그동안 다닌 곳은 주로 서울 주변의 동서남북의 명소들이다. 다소 먼 곳으로는 지하철 1호선의 소요산, 지하철 3호선의 일산 호수공원, 4호선의 수리산이 있다. 중앙선 주변에는 용문산, 청계산, 운길산, 예봉산 등이 다녀 본 산들이다.

대체로 기반시설은 잘 되어있는데 어떤 곳은 과잉투자를 하여 자연미를 훼손한 곳들도 있다. 체험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적어보겠다.

첫째로 흙을 밟지 못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곳이 많다. 수목은 울창한데 시멘트나 돌로 포장된 곳에서는 이마가 찌푸려진다. 대모산, 일자산, 개화산, 경기도 청계산은 전 코스가 흙으로 돼 있어서 좋다. 포장되되 보도는 부드러운 포장재를 쓴 일산 호수공원, 우장산은 걷기에 편하다.

둘째로 도로표지가 불친절한 곳이 많다. 처음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지하철 몇 번 출구로 나가 어디로 진입할 지 헤매거나 행인에게 묻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약도를 참고해도 현장에 가면 아무 표지가 없어서 방황하게 된다.

경기도 청계산은 국수역 출구를 나서면 바로 화살표 표시가 있어서 순조롭게 진입할 수가 있다. 같은 노선인데 운길산이나 예봉산에는 그런 게 없었다.

북서울 꿈의 숲은 연계버스의 표지가 잘 돼있다. 셋째로 안내가 더 자세했으면 좋겠다. 길동 생태공원은 미리 예약해야만 입장 할 수 있다. 장구직원들의 말과 안내서의 지시대로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지정된 날에 갔더니 65세 이상은 예약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롱당하는 기분이었다. 안내원에 문의 할 때나 유인물에는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었다.

반대로 아차산, 수락산 명상의 숲, 수리산 산림욕장에는 애송시의 게시판이 산재해 있어서 한 호흡 멈추고 미소 짓게 하는 배려가 고맙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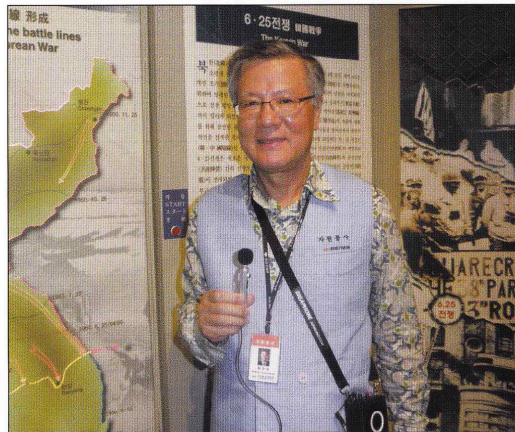
이런 경험담을 쓰는 것은 사우회 산악회원이나 동호인들이 모니터가 되어, 불편한 점이 있을 때마다 관계기관에 제보하여 시정하고자 제언하고 싶어서다.

그러면 우리도 박찬순작가나 신준우시인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네비게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 사람!

전쟁기념관 도슨트 황영욱

"공부하고 봉사하는 '인생 2막' 꾸준히 꾸려 나가야죠"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에서 방문자들에게 한국전쟁에 대해 설명하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몇 년 간 수많은 자원봉사를 했지만 전쟁기념관 도슨트는 제게 더욱 각별합니다." 2009년부터 전쟁기념관 도슨트(안내원)를 하고 있는 황영욱 전 MBC 라디오뉴스편집부장. 모질 공고를 보고 우연히 지원하게 됐지만 6.25전쟁과 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다.

"큰 형이 6.25 전쟁 당시 경찰이었는데 공비를 토벌하다 돌아가셨어요. 그 때 나이가 겨우 20대 중반이었죠. 저는 이

때력에 폭 빠진 것이다.

"79년 기획사업부에서 일할 때였는데 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와 피아니스트 아쉬케나지를 초청해 공연을 했어요. 그들이 위대한 음악가였다는 건 한참 후에나 알게 됐죠. 아마 그 때의 기억 때문에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비보도국에서 근무하면서 오히려 문화적 자산을 갖게 된 셈이죠. 특히 88년 라디오편집부 차장으로 있을 때 만든 라디오

그 때 만든 라디오 시그널 아직도 그대로 사용... 문화공부에 심취
6.25 60주년 가족사와도 얽혀있어... 도슨트 봉사에 각별한 애정

를 때라 큰 형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지만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상상하기조차 힘들죠. 작은 형도 낙동강 전투에 참여한 학도병이었어요. 6.25 전쟁을 온몸으로 겪은 형제가 둘씩이나 있으니 저에게 전쟁기념관 도슨트는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거죠."

매주 수요일 오전에 봉사활동을 하는 그는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위해 10주간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관람객에게 6.25 전쟁을 더 잘 알리기 위해 관련 서적을 틈틈이 읽고 신문에 관련기사가 나면 스크랩해뒀다가 활용하기도 한다.

"관람객을 안내할 때마다 '오늘 하루는 어떤 멘트로 시작할까' 고민을 해요. 늘 똑같은 내용으로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관람객에 따라 안내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거든요. 저도 더 공부하게 되고 관람객에게도 더 새로운 내용을 알려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시그널이 아직도 '아침종합뉴스', '뉴스의 광장', '2시의 취재현장' 시그널로 쓰이고 있는데 너무 뿌듯합니다."

그는 2007년부터는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향기 카페 운영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과 함께 두 달에 한 번 정도 문화답사를 하는데 최근에는 MBC 드라마 <동이>를 보면서 생각난 숙빈 최씨의 무덤인 소령원을 다녀왔다고. 문화 공부에 대한 열정은 자연스레 자원봉사로 이어졌다. "제가 공부한 게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봉사하는 기쁨도 누리고 봉사를 통해 배울 수도 있으니 더없이 좋습시다." 고려말 명승 나옹선사의 시 '청산은 나를 보고'를 가장 좋아한다는 그는 지금처럼 공부하고 봉사하는 '인생 2막'을 꾸준히 꾸리는 게 목표다.

박성희 기자 birdy23@naver.com



어린이들의 꿈이 이뤄지는 곳 KidZania

2010년 2월 27일 송파구 잠실에 오픈한 '키자니아'는 국내에 첫 선을 보이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이다. 현실을 재현한 도시에서 어른이 되어 경찰관, 승무원, 소방관, 요리사 등의 실제 유니폼을 갖춰 입고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일을 한 뒤에는 키조(KidZo)라는 키자니아 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지급받아 자신이 직업체험을 통해 번 돈을 키자니아 내 은행에 저금하거나 백화점서 물건을 살 수도 있어 자연스럽게 경제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다.

MBC의 지회사인 MBC플레이비(대표이사 최성금)가 운영하는 키자니아 서울은 전 세계 8개의 키자니아 중 최대 규모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고 까다로운 한국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춰 키자니아 서울의 모든 체험 활동 컨텐트는 MBC, EBS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0만 명 돌파를 곧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곳에 있는 상점, 빌딩, 레스토랑, 방송국, 자동차, 거리의 가로수 등 모든 것들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물의 2/3사이드로 축소되어 있다.

어른이 되는 나라

KidZania™

세계적인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진짜를 체험하고 진짜를 배웁니다

세계적인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키자니아
현실 그대로의 도시에서 90여 개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키자니아는
재미있게 놀면서 경제와 사회를 배우는 진정한 에듀테인먼트 공간입니다.

지붕까지!

해리는 의사가 될거야!

나 세비서가 될거야!

나 에이징 아티스트!

나 경찰관이 될거야!

나 비즈니스 공장 공장장!



NAVER

키자니아

TM

예약문의 : 1544-5110



어른이 되는 나라

KidZania™

www.kidzania.co.kr

대한민국 대표기업들이 함께 합니다

